

---

# 중국시멘트산업 동향

---

2015. 4.

한국시멘트협회

# 중국시멘트산업 동향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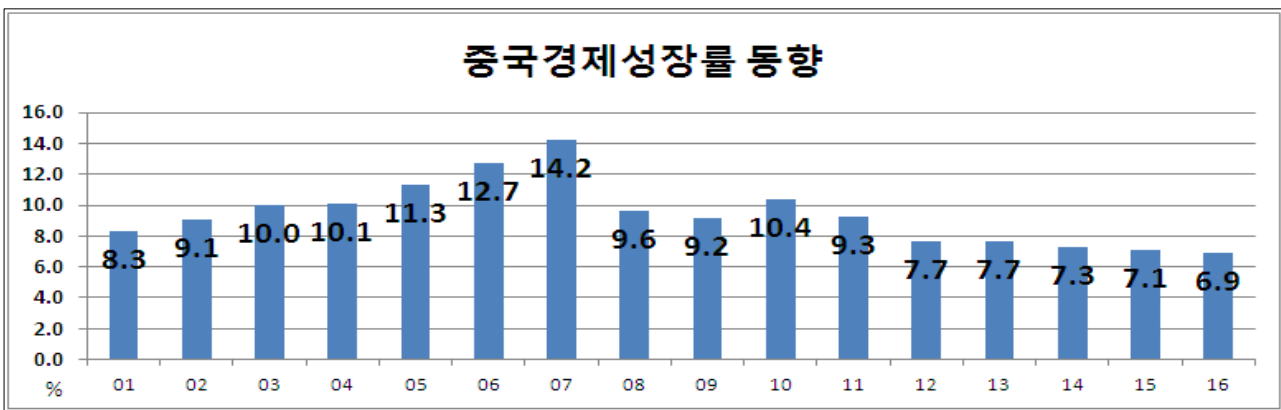
## □ 중국경제성장률

### ○ 중국 중속성장 시대로 진입을 공식 선언

- 2015년 역대 최저치인 6.9%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고속성장에서 중속성장 시대로의 진입
- 중국정부는 기존에 급격한 성장에 따른 후유증을 줄이고 점진적인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해 향후에도 5~7% 수준의 성장속도를 유지할 것임을 강조

### ○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공공·민간 인프라의 지속적인 투자

- 실크로드 경제벨트 등 인접국가(파키스탄 인도, 미얀마)와의 협력 프로젝트 추진
- SOC투자 : 2030년까지 40만km의 철도망 확대(예산미정), 농지개경(710조원) 등
- 주택사업 : 2020년까지 낙후건물들의 현대화를 위해 7,560조원 투입예정



출처 :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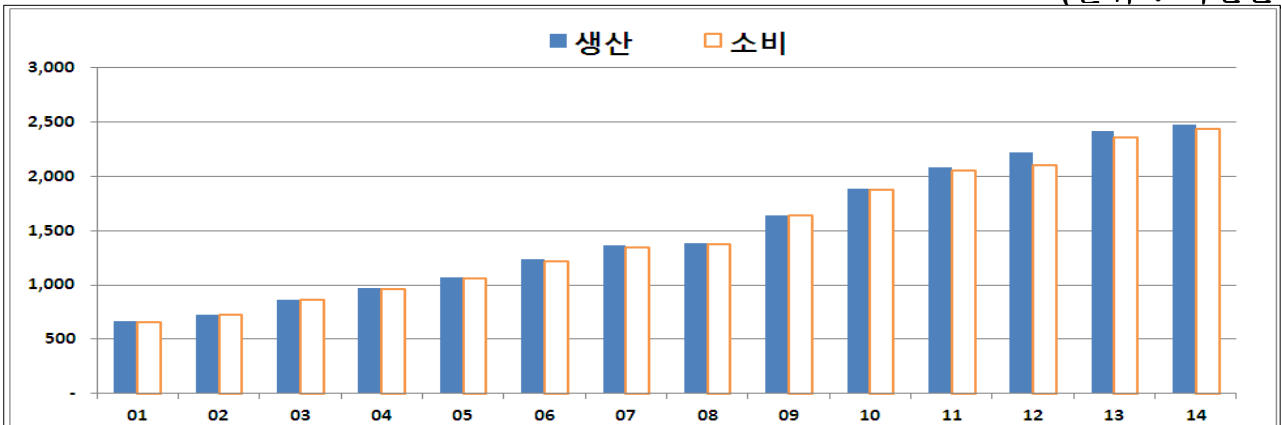
## □ 중국시멘트수급

### ○ 생산 및 소비동향(2013년 기준)

- 23~24억 규모의 생산·소비를 보이고 있으며 98%이상 자국소비 사용
  - 시멘트소비처 : 주택(28%), SOC(24%), 농업(18%), 산업(15%), 공공(15%)
  - 시멘트제품구성 : 벌크(56%), 포장(44%), OPC중 32.5제품이 60~70%점유율 차지)
  - 혼합시멘트구성 : 클링커(58%), 석탄재(18%), 슬래그(14%), 석회석(6%), 석고(4%)
- ※ 중국정부는 슬래그, 석탄재와 같은 산업부산물 사용시 제품의 증치(부가)세(17%) 환급

## 중국의 시멘트수급동향

(단위 : 백만톤)



출처 : 유럽시멘트협회 통계, ICR 3월호

### ○설비동향(2013년 기준)

- 생산능력 : 클링커 19.1억톤(1,587개 킬른), 시멘트 31.6억톤
- 킬른규모비율 : 생산규모 5천톤 이상/일 (50.6%), 4천톤 미만/일 규모(49.4%)
- 환경개선과 가동률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설비현대화 및 낙후설비 제거 정책 펼침
  - 낙후설비(9천만톤 규모)를 보유한 업체에게 별도의 세금부과

### ○연료사용(2013년 기준)

- 전체연료 중 유연탄투입비율 : 99.1%(대체연료 0.8%사용, 2백만톤 이하)
- 평균열소모량 : 톤당 756Kcal(클링커 기준)
- 평균전력소비 : 톤당 59kwh(클링커 기준), 96kwh(시멘트 기준)
- 폐열발전 : 1,130개의 폐열발전기 운영(총 7.4GW의 설비용량), 톤당 32~36kw 획득

### ○수출입(2014년 기준)

- 수출입 규모 : 수출(11.6백만톤), 수입(50만톤)
  - 시멘트는 유연탄사용량이 높은 산업으로 정부에서 고에너지 산업에 대한 수출을 지양하는 정책을 펼쳐 수출량은 생산대비 0.5% 수준
- 주요수출국
  - 아시아 : 시멘트(몽골, 호주, 싱가포르, 일본), 클링커(홍콩, 방글라데시, 호주)
  - 아프리카 : 시멘트(앙골라, 콩고, 카메룬, 가봉 등), 클링커(케냐)
  - 기타 : 시멘트(미국, 러시아), 클링커(브라질)
- 주요수입국 : 대만, 베트남

## □ 중국시멘트기업 동향

### ○ 산업구조조정으로 인한 수익률 증가

- 2014년 총매출 : 9,792억 위안(약 176조원)으로 2013년 대비 0.9% 증가
- 2014년 당기순이익 : 780억 위안(약 13조원), 총 매출대비 8.0%
- 10대 기업의 시장점유율 : 49%(대기업 중심의 인수합병 및 정부협조로 점차 증가될 전망)

### 2013년 10대 기업별 생산능력

순 위	1위	2위	3위	4위	5위
업체명	CNBM	Conch	Sinoma	Jidong	CRC
클링커(백만톤)	297.8	156.1	83.3	69.1	55.3
순 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업체명	Taiwan	Shanshui	Huaxin	Red Lion	Beijing Jin Yu
클링커(백만톤)	50.6	45.0	40.8	35.3	33.7

### ○향후 전망

- 시멘트산업성장률 : 3%수준(2015~2016년),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인한 소비증가율 감소
- 최대소비량 : 28억톤(2019년), 이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
- 구조조정 업체 수 : 1,000개 업체가 감축될 전망(2,500개 업체 → 1,500개 업체)

# 중국시멘트산업 동향

최근 중국 경제성장률은 두 자리수 성장에서 한 자리수 성장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성장률의 변화는 향후에 세계 1위 경제대국인 미국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단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경제시장으로만 남을 수 있는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시멘트산업은 과잉설비 문제뿐만 아니라 가동률 하락 그리고 높아진 환경기준에 따른 설비감축 등 정부의 압력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 □ 경제동향

중국경제는 2014년 3분기까지 꾸준한 개선을 보여 왔으나 경제성장률은 2013년 대비 0.4% 감소한 7.3%를 기록하며 1992년 이후 최저성장률을 기록하였다.

IMF(국제통화기금)는 2015년 경제성장률은 6.8%를 기록할 것이며 추가적으로 6.3%까지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경제의 장기침체의 시작을 보이는 징조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2014년 10월 중국인민은행은 1,000억 달러(약 110조 원)를 투입하며 침체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 또한 2015년 2월에는 더 많은 자금이 내수로 흘러가기 위해 정부는 은행의 예금준비율(은행이 중앙은행에 예금으로 보유할 것을 의무규정으로 한 각종 예금 총액의 일정비율)을 0.5%씩 줄였다.

## □ SOC투자

지금까지 SOC인프라 확충과 공공주택사업에 쓰였던 공적자금은 높은 경제성장률을 이끌었다. 하지만 공적자금을 통한 경제성장률 증가는 단기적으로 몇 년 동안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제한적인 발전을 이끌 것이다.

현재 1.1만km구간의 고속철도와 5천km의 일반철도가 공사 중에 있으며 2030년까지 40만km의 수준으로 철도망을 확대시킬 계획이다. 또한 2015년 까지 6천km의 고속도로와 30만km의 일반철도가 완료될 것이라고 제12차 연간계획에서 발표되었다. 중국수자원부는 2020년까지 농지개경사업과 수질관리를 위해 국가적으로 4조 위안(약710조원)위안을 투자할 계획이며 북경시는 국제공항을 위해 800억 위안(약1조 6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러한 지속적인 SOC투자는 시멘트업체들에게 많은 이익을 안겨줄 수 있을 것이다.

## □ 주택사업

정부의 공공주택프로그램은 시멘트소비증가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중국도시농촌건설부는 2013년 470만호, 2014년 480만호 건설이라는 목표수량을 초과달성하였으며 중국의 주택현대화 비율은 2020년에 6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며 42조 위안(약 7,560조원)의 투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17년 사이에 중국도시농촌건설부는 1,500만개의 오두막집을 재개발할 예정이다 지역적으로는 주택개발지역으로 선정된 산시성에 450억 위안(8조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내몽골자치구의 60만개의 오두막집에 1,110억 위안(20조원)이 투자되어 재개발 될 예정이다. 현재 신장자치구는 26만개의 임대주택개발을 위해 440억 위안(7.9조원)이 투자되고 있다.

## □ 시멘트소비

2014년 시멘트소비는 2,436백만톤 수준이며 성장률은 전년대비 3.3%로 2013년 16.7% 증가에 비해 상당히 낮아졌다. 이러한 성장률의 감소세에는 2014년 Anhui Conch, CNBM, China Resources Cement, China Shanshui Cement 같은 메이저 기업들의 판매증가율 감소의 영향이 컸다. 업체들의 2014년도 1분기 성장률은 0~9% 미만이었으며 2013년 1분기 성장률인 8~29%에 비하여 크게 감소하였다.

### 2012~2016년 수급동향

(단위: 백만톤,%)

	2012A	2013A	2014E	2015F	2016F
소비	2,020	2,358	2,436	2,510	2,600
증감율(%)	-1.46	16.7	3.3	3.0	3.6
생산	2,200	2,414	2,476	2,590	2,680
수출	10.5	11.3	11.6	11.6	11.8
수입	0.65	0.5	0.5	0.45	0.45

출처 : International Cement Review 3월호

2013년 시멘트는 주택시장(28%), SOC인프라(24%), 농업(18%), 산업(15%) 공공사업(15%)에 소비되었으며 이러한 소비패턴은 향후 몇 년간 계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2013년 기준 벌크 시멘트는 전체 시멘트판매량의 56% 수준이며 나머지는 포장 시멘트로 판매되고 있다. 2015년에는 벌크시멘트 비율이 6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송비율은 선박(52%), 화차(28%), 트럭(20%)순이다.

보통 포틀랜드시멘트는 압축강도(Mpa)가 32.5, 42.5, 52.5인 제품들이 주로 판매되었으며 32.5규격인 제품이 현재 가장 대중적이며 전체 제품 중 60~70%정도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유율은 가까운 미래에는 변화될 것이다. 3억톤의 시멘트 분쇄설비가 제거될 예정이며 혼합시멘트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에서는 산업폐기물이나 석탄재를 사용 시 부가세를 환급해주고 있다. 중국의 혼합시멘트의 구성비는 클링커(58%), 플라이애쉬(18%), 슬래그(14%), 석회석(6%), 석고(4%)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 □ 생산능력의 현대화

중국시멘트산업의 클링커 생산능력은 19.1억톤으로 측정 된다. 그리고 시멘트생산능력은 31.6억톤이다 반면에 최근 몇 년간 설비가 확장된 반면에 성장세는 줄어들었다. 시멘트생산능력이 6.6억톤에서 29.5억톤으로 10년 만에 증가 하였을때 만큼의 급격한 생산능력의 증설은 끝났다. 정부는 시멘트산업으로의 진입을 억제하고 있으며 낙후설비를 신식설비로 교체하는 것 이외에 그린필드 지역 내에 시멘트공장의 설립을 법적으로 금지시키고 있다.

2013년 중국은 1,587개의 킬른 중 대규모의 킬른(1만톤/일(11개), 6천톤/일(25개), 5천톤/일(전체킬른의 50.6%))의 비율을 높이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중형(1~4천톤/일) 미만의 생산설비 존폐여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2014년 82개의 생산설비가 증설되었으며 35개는 폐쇄 되었다. 2015년에는 26백만톤의 시멘트생산능력이 증설될 예정이며 2016년에는 22백만톤이 감소한 4백만톤의 증설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 □ 낙후설비의 지속적인 감축

낙후설비의 감축속도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2014년 중국산업부는 50.5백만톤의 낙후설비를 감축하기로 목표를 정하였다. 2015~16년에는 1.5억톤의 저효율 생산설비를 현대화할 예정이다. 2014년 5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질량감독검역총국은 낙후설비를 보유한 93백만 규모의 시멘트생산업자들에게만 차별적으로 파우더관세를 부과하는 등 낙후설비의 감축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감축정책으로 인해 2011년 70.5%의 가동율이 2014년 74.0%으로 증가하였다.

## □ 연료와 파우더사용

중국은 유연탄 매장량이 풍부하여 시멘트회사들도 킬른운용에 있어 대부분 유연탄을 사용하고 있다. 2013년 전체연료 중 유연탄투입비율은 99.1%였다. 대체연료 사용은 걸음마 단계이며 오직 0.8%(1.5백만톤)만이 대체연료로 사용되고 있는 수준이다. 2015년에는 6~8백만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평균열소모량은 톤당 756kcal(클링커 생산기준)이다. 2013년 톤당 평균전력소비는 클링커는 59kwh이며 시멘트는 96kwh이다. 전력의 일부분은 폐열발전으로 발생되었으며 현재에도 1,130개의 킬른에 폐열발전기가 운영되고 있으며 총 7.4GW의 설비용량을 가지고 있다. 평균적으로 클링커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폐열은 톤당 32~36kw수준이다

## □ 기업 합병

### 2013년 10대 기업별 생산능력

순 위	1위	2위	3위	4위	5위
업체명	CNBM	Conch	Sinoma	Jidong	CRC
클링커생산능력 (백만톤)	297.8	156.1	83.3	69.1	55.3
순 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업체명	Taiwan	Shanshui	Huaxin	Red Lion	Beijing Jin Yu
클링커생산능력 (백만톤)	50.6	45.0	40.8	35.3	33.7

중국의 10대 기업의 시장점유율은 49%에 육박하며 시장점유율이 높아진 이유는 정부의 구조조정에 따른 낙후설비업체의 감소와 더불어 10대기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인수합병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 10월 1위업체인 CNBM은 시장안정화를 위해 Shanshui 시멘트의 지분을 16.7% 인수하였고 이후 추가적인 지분인수를 위해 신용대출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인수합병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된다. CNBM은 지난 5년동안 인수합병을 통하여 시멘트생산능력이 2008년 1.3억톤에서 2013년말 4억톤으로 크게 급증하였다.



Anhui Conch는 West China의 인수합병을 통하여 30백만톤의 시멘트생산능력을 확보하려한다. 또한 14년도 1분기에 Conch는 3개의 킬른과 10개의 분쇄설비를 새롭게 가동하여 클링커 및 시멘트 생산능력을 10.9백만톤, 17.7백만톤 증가시켰다. 2014년 11월에는 Conch 계열회사중 하나인 Chongqing Conch가 3번째 클링커 생산라인(4,500톤/일)을 하북성에서 가동하였다.

2013년 Sinoma는 Tianshan Cement(35.4%) Ningxia Building Materials (47.54%), Qilishan Holdings(51%)의 지분인수를 통하여 시멘트생산능력을 105.8백만톤으로 확장하였다. 그 결과 14년 1분기 시멘트 판매량이 2백만톤 이상 증가하였다.

Jidong Cement는 산시성, 지린성, 하북성, 충칭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며 Shengtai Cement's의 생산라인(4,500톤/일)을 획득하였다. 회사는 현재 클링커 설비(2,500/일)를 산시성에 증설하였으며 흑룡강성에서도 새롭게 증설된 클링커 생산설비(7,200톤/일)가 정부의 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China Resource는 71백만톤의 시멘트생산능력을 가지고 있다. 광동성, 광시족자치구, 신장자치구에서 강력한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며 5개 이상의 생산설비 라인을 증설할 수 있는 권리를 정부로부터 인정받아 시장상황이 개선될 경우 생산설비를 증축할 예정이다.

Taiwan Cement는 2014년에 55.2백만톤의 시멘트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귀주성, 사천성에 각각 클링커 생산능력 1백만톤, 60만톤 라인을 포함하여 새로운 생산라인들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사천에 있는 Sichuan Railway Group Cement의 인수로 2~8백만톤의 설비확장이 이루어졌다. 회사는 2016년 말까지 사천, 충칭, 귀주성, 광동성 등 중앙과 남쪽지방에 위치한 시멘트회사를 인수합병하여 시멘트 생산능력을 1억톤으로 증가시킬 계획이다.

2014년 Shanshui Cement는 내몽골자치구와 산시성에 시멘트생산설비를 전년대비 11%증가시켰다. 정부는 산동성과 요녕성 지역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이 회사에 해당지역의 기업인수합병에 있어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2014년 6월 기준 시멘트 및 클링커생산능력은 각각 98백만톤 및 46백만톤이다.

## □ 수출입

시멘트는 몽골, 호주, 싱가포르, 일본 등 아시아지역과 미국, 러시아 그리고 아프리카지역의 앙골라, 콩고, 카메룬, 가봉에 수출되고 있으며 주로 광시성, 하북성, 랴오닝성, 신장자치구 등에서 수출되고 있다. 클링커는 홍콩, 방글라데시, 호주, 케냐, 브라질에 수출되며 주로 요녕성, 광시성, 광둥성, 내몽고자치구에서 수출된다. 지난 몇 년간의 수출규모는 10~11백만톤 수준이며 2014년에는 11.6백만톤을 기록하였다. 수입은 업체들의 생산능력 증가로 인해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며 2013년 65만톤에서 2014년 50만톤으로 감소하였다. 주요 수입국은 대만과 베트남이며 복건성, 광둥성, 하이난성을 통해 수입되고 있다.

## □ 가격

2012년 기준 벌크시멘트의 공장도가격은 296위안(\$47.4)이었으며 포장시멘트는 312위안(\$50.2)이었다 2013년의 평균가격은 벌크시멘트는 300위안(\$48.3), 포장시멘트는 316위안(\$50.8) 이다. 14년 1분기에 시멘트가격은 10.7% 상승하였으며 2014년 2분기에 3%상승하였습니다. . 중국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32.5규격의 포장시멘트가격은 292위안(\$46.9)이었으며 42.5규격의 벌크시멘트는 306위안(\$49.2)이다.

## □ 향후전망

중국 시멘트산업의 2014년 총 매출은 9,792억 위안(175조억 원)으로 2013년대비 0.9% 증가하였으며 당기순이익은 730억 위안(13조 원)으로 8.0%을 기록하며 과잉산업중인 타업종(석탄5.9%, 유리 5%, 비철금속3.3%, 철강0.9%)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이익을 얻었다. 중국의 경제성장을 및 건설투자증가 더 이상 두 자릿수 비율로 증가하지 않고 있고 시멘트수요 증가세도 3~4%수준으로 크게 감소되었기 때문에 2015~2016년의 시멘트소비는 25~26억톤 규모로 전년대비 4% 이내의 성장을 보일 것이며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의 시멘트소비는 2019년 28억 톤으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의 시멘트산업 합리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2,500개의 업체들은 통합되어 1,500개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에 시멘트분쇄설비 및 사일로는 2,500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원본자료 : International Cement Review 2015. 3월호 Market Report  
“China Succumbs to normality” 번역